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 유서*

정기철(한남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 |
| 2. 자기성장과 자기성찰 | 5. 결론 |
| 3. 자기성찰 글쓰기의 절차 | |

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글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업적은 그 양과 질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¹⁾ 이러한 발전은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 교육이 국어교육의 부속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역이자 전문적인 이론과 교육 방법이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쓰기 교육이 독립적인 분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제 글쓰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 글쓰기 교육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학습자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발전'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의 주된 관심이 글이란 결과물에서 학습자로 넘어온 것만으로도 발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와 학습자의 삶 속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글쓰기 교육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물리적 성장이 아닌 인격적·정서적 성장을 도모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은 소위 '9포 세대'²⁾·'취업절벽세대' 등으로 불리며 인간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경제논리와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는 인간답게 잘 살고 있는가?'·'인간다운 것이란 무엇인가?' 또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어떻게 살아야할까?' 등과 같은 반성과 의문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달려가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글쓰기가 자기 성찰적 글쓰기이다.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자기성장과 자기성찰

일반적으로 성장은 세포 분열의 증가로 일어나는 키나 몸무게 치수 증가를 의미하거나 경제·사회·과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표 상승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성장은 이러한 증가만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성장은, 감정·정서·성격·기질·개성·인성·인격 등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안정·조화·세련·통합 등의 질적 개념으로도 이해되고 사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타인과의 교유가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겸양·양보·관용·공감·용서 등과 같은 상호작용적 덕목들이 더 중요한 성장의 요인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은 동·식물의 성장이나 경제·사회·과학 등의 성장과는

2) '9포 세대'란 '연애·결혼·출산·내 집 마련·인간관계·희망·꿈·건강·외모'를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 처음에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출발하였는데 '5포 세대'·'7포 세대'를 넘어 '9포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다르다. 이들의 성장은 외부환경에 의한 성장이거나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이지만 인간의 성장, 즉 질적 개념의 성장은 외부 환경의 영향보다는 자기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한 성장의 요소가 훨씬 더 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질적 개념의 성장은 자기개방을 통해 자기수용과 자기이해에 이르러 타인과 외적 환경까지도 나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에 의해 성장한다는 것이다.³⁾

따라서 자기성장은 자기성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성찰 없이 자기성장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질적 개념의 자기성장은 나를 뒤돌아보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기 성찰이 없이는 자기성장을 이룰 수 없다.

자기성찰은 깨달음을 통해, 깨닫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나는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심오한 경지의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것과 반성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지난 경험들을 꺼내어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경험들과 연관 지어 현재적인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로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직면은 억제·무관심·회피 그리고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변환과 대립한다. 즉 직면의 힘을 길러 과거나 현재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과 맞서게 하고 그것들과 그것들에 의해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것들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이루어 나

3) 본고에서 성장 앞에 굳이 ‘자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도 역시 이와 같다.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모든 경향과 행동의 주체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성장’이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가는 것을 '자기실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자기실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정신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외상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낮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게 한다. 과거의 나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극단의 경우 기억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아예 지우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투사 등과 같은 방어기제를 작동하느라 자신의 모든 힘을 쏟기도 한다.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과 구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인 선택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가 필요하다.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를 통해 과거의 나와 직면하게 하고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나를 계획하고 자신의 꿈과 능력을 실현하면서 진정한 행복에 도달 할 수 있다.

3. 자기성찰 글쓰기의 절차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는 단선적이거나 일회성의 글쓰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는 복합적이며 때로는 비선형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쓰기 과정을 잘 조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때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험과 감정들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성찰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불만을 키워 결국에는 부정적인 자아, 비관적인 삶을 태도를 양산할 수 있다.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자기성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동이 끝나면 쓴 글을 다시 읽어 보고 자신의 느낌을 꼭 쓰도록 했다.

1. '나' 이해하기 - 현재의 '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
 - 가. '나' 소개하기
 - 나. 현실의 '나'와 욕망하는 '나'
 - 다. 다른 사람에게 자주 듣는 말
 - 라. 행복의 열쇠 - 자존감 측정하기
2. 관계성 인식하기 - 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 가. 오헨리의 창
 - 나. 관계도 그리기
 - 다. 인생곡선 그리기
 - 라.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3. '나' 버리기 -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 가. 미처 하지 못한 말
 - 나. 용서합니다.
 - 다. 그 때로 돌아간다면
 - 라. 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
4. 동일화하기 - 모두가 함께 하는 삶
 - 가. 내가 부르는 노래
 - 나. 자주 쓰는 방어기제
 - 다. 다른 사람 관점에서 '나' 바라보기
 - 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나' 성찰하기
 - 가. 재산목록 쓰기
 - 나. 유서쓰기 - 이제 다 놓고 갑니다.
 - 다. 묘비명 쓰기

1. '나'이해하기는 현재의 나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활동들과 글쓰기로 구성하였다. 나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다양한 요소나 자질로 분석하게 하고 삭제의 기법이나 은유·상징의 기법도 사용하였다. 그 다음 쓴 문장을 읽고 덜 중요한 문장 하나를 삭제하고, 남아 있는 문장을 다시 읽고 그 중에서 덜 중요한 문장을 삭제하는 반복과 삭제

의 기법을 적용하였다. 반복과 삭제의 기법은 자기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과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각오와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관계성 인식하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 내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양한 입장과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자기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활동은 진정한 자기를 이해해 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글쓰기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관계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의 원리를 찾아내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3. ‘나’ 버리기는 내 안에 남아 있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을 버리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끼쳤던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을 버리는 일로 나누어 활동한다. ‘3-가. 미처 하지 못한 말’에서는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도 하지 못했던 사과의 말과 용서를 구하는 말을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하고 ‘3-나. 용서합니다’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하여 내 안에 남아 있는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마음과 부정적인 기억들, 상처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3-다. 그 때로 돌아간다면’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미성숙한 반응을 보였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 당시로 돌아가 미성숙했던 반응을 조정하여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활동이다. ‘3-라. 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는 ‘나’ 버리기의 핵심활동이자 심화활동이다. 학습자에 연속적으로 4일 동안, 하루에 최소 20분씩 자신의 슬픔에 대해 글을 쓰게 하여 학습자의 기억 깊은 곳에 있었던 슬픈 감정들을 해소하게 한다.⁴⁾

‘4. 동일화하기’는 나와 다른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고 서로 공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활동이다. 핵심은 ‘나’를 객관적인 자세로 조망하게 하여 내 삶의 문제점과 다른 사람과의 비정상적인 관계 형성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우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4) 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에 대해서는 정기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 ‘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를 중심으로』(『韓國言語文學』第74輯, 韓國言語文學會, 2010)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다.

4.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

자기성찰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성찰이다. 자기성찰은 앞의 글쓰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3-라. 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를 하면서도 학습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사람과 삶,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성찰의 기회를 자길 수 있다.

하지만 유서 쓰기는 극한적인 상황인 ‘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쓰는 글이어서 자기성찰의 효과가 매우 크다. 유서 쓰기는 자기성찰의 효과도 크지만 글쓰기 교육의 좋은 소재이자 양식이다. 좋은 글은 극한상황에 처했거나 쓸 내용이 많을 때 탄생한다.⁵⁾ 유서 쓰기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문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희망을 교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4.1. 재산목록 작성하기

유서 쓰기에 앞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무형 재산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손·발·눈 등 신체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마음’ 같은 성격과 기질, ‘노래 솜씨’와 같은 장기와 특성, 파란 배낭·불펜 같은 사물, ‘친구와의 추억’ 등과 같은 경험과 추억, 초등학교 친구·고3 담임선생님과 같은 인간관계까지 모두 재산목록에 적도록 한다.

그리고 되도록 재산 앞에 꾸미는 말을 적어 그 재산에 대한 나의 추억·생각·감정·느낌들을 담도록 했다. 가령 ‘목걸이’라고 적기보다는 ‘수확여행 가서 산 목걸이’로 적도록 유도하였고, 단순히 ‘손’이라고 적지 말고 ‘설거지를 잘해서 칭찬 받는 손’이라고 적도록 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담기 위해서이다.

5) 글쓰기 교육에서 내용생성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쓸 내용이 많으면 어휘·문장·문단 쓰기뿐만 아니라, 글의 구성도 매끄럽다.

꾸준히 부어온 주택청약
 방의 한쪽 벽면을 꽉 채운 책들
 6년째 잘 쓰고 있는 D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컴퓨터를 가득 채운 사진들(오래전부터)
 라오스에서 사온 수제 공책
 통신사를 옮기면서 싸게 주고 산 스마트폰
 선물 받은 음악 CD
 텀버튼전 전시회 기념품(엽서)
 알폰스무하전 전시회 기념품(거울, 엽서)
 마리스칼전 전시회 기념품(엽서)
 첫 월급으로 샀던 가방
 어릴 적부터 받아서 모아 놓은 편지들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장들
 전 남자친구가 써준 편지들
 하루에도 몇 번씩 써우고 화해하는 언니
 말 안 들어도 자꾸 신경 쓰이는 남동생
 언제든지 전화한통이면 바로 달려와 주는 친구
 무슨 일이라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오랜만에 연락하고 마주해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7살 때부터 써온 내 책상
 국토대장정 완주증
 라오스에서 만난 마음이 고운 친구들
 전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받은 꽃다발
 옷장을 채우고 있는 옷가지들
 대학 입학 선물로 엄마가 사준 지갑
 충원이가 선물해준 예쁜 슬리퍼
 400일 기념 선물로 받은 열쇠고리
 방학 내내 수업 들으면서 이수한 자격증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토익 점수
 화장대에 쌓여있는 아이새도우들
 꼬박꼬박 연락하지 못해도 잘 챙겨주는 정석오빠
 동생처럼 예뻐해 주고 아껴주는 선배들
 친언니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수이언니
 기본적인 반주를 할 수 있는 손가락
 못생겨서 내놓기 창피한 발가락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 다리
 일하는 엄마가 집에 남겨놓은 메모를 모아둔 공책
 여권
 방송반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
 3년 동안 만들고 제작한 영상들
 지금 만나도 반가운 방송반 친구들
 3년 동안의 우리의 추억

조만간 접힐 것 같은 뺏살
 튼실한 다리 근육
 못생겨도 튼튼한 손가락
 회정이가 해외여행 선물로 준 컵받침
 수제 우산
 주기적으로 펴줘야 하는 곱슬머리
 꼬박꼬박 아침을 먹는 버릇
 거친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입
 올바른 것가락질을 잘 하는 손
 중학교 때부터 써온 성경책
 곰인형
 수제종이와 만년필 세트
 파피루스 종이와 천연 잉크
 사 놓고 몇 번 신지 않은 구두들
 이벤트 할 때 겨우 산 블랙마틴 싯봉
 적절한 위로를 적절한 때에 선물하는 친구
 항상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
 9년간의 시간이 기록 된 미니홈피
 아빠에게 대하는 통명스러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엄마에 대한 투정
 불안하든 손 가시를 뜯는 버릇
 지나친 완벽주의
 유일하게 자부할 수 있는 콧대
 튼튼해도 너무 튼튼한 허벅지
 서연이가 선물해준 켈리그라피 펜
 지각하지 않는 부지런함
 청춘, 젊음
 내 인생에 대한 열정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
 겨울만 되면 밀려오는 게으름
 사람에게 약한 마음
 마음먹은 대로 해야 하는 고집
 예쁘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손
 가끔은 엄마에게 애교부릴 수 있는 팔
 대학교 4년 내내 필기해온 공책들
 못생기고 크기만 해도 튼튼한 발
 화장이 잘 먹는 피부
 항상 피곤한 것 같은 몸
 늦게 자는 버릇
 그로 인한 다크 서클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온 상장들
 라오스에서의 추억
 제주도에서의 추억

언제든지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이모네
친 딸처럼 아껴주시는 이모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준영오빠

통영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
전주여행에서의 추억
부산에서 만난 인연, 손때 묻은 책
홀탕하진 못해도 버릴 수 없는 수능 성적표⁶⁾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물과 물질적인 것들을 재산으로 쓴 뒤 부모·형제자매·친구들을 비롯한 인간관계를 재산으로 기록한다. 처음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쓰지만 점차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물도 처음에는 ‘꾸준히 부어온 주택청약·방의 한쪽 면을 짝 채운 책들·6년째 잘 쓰고 있는 DSLR 카메라’ 등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물들을 쓰지만 목록을 쓸수록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물들, ‘전 남자 친구가 써 준 편지들·대학 입학 선물로 엄마가 사 준 지갑·충원이가 선물해 준 예쁜 슬리퍼’ 등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물과 특별한 날에 받은 선물들을 쓴다. 이러한 양상은 학습자들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나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사고 전환을 이루며 동시에 자신의 삶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중심의 재산목록은 사물에서 인간관계로 전환하고,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학습자에게 긍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꼬박꼬박 연락하지 못해도 잘 챙겨주는 정석오빠·동생처럼 예뻐해 주는 선배들·친언니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수이언니’ 등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사람들을 재산목록에 쓴다.⁷⁾

학습자들은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물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으로 점점 옮겨가는 특징을 보인다. ‘방송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라오스에서의 추억·통영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추억’ 등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과 겪었던 추억이나 여행의 추억들도 소중한 재산으로 등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 ‘유일하게 자부할 수 있는 곳대·내 인생에 대한 열정·성실하게 살고자하는 노력·가끔은 엄마에게 애교부릴 수 있는 팔’ 등 자신의 신체나 긍정적인 자질 등도

6) 본고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것은 모두 학생들의 글이다. 학생들과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학생의 이름은 밝히지 못한다. 또한 학생의 글을 잘못된 곳이 있어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함을 밝힌다.

7) 이러한 양상은 ‘3. ‘나’ 버리기’에서 부정적인 것,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을 청산하거나 용서하고 화해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재산이 되지만 ‘조만간 접힐 것 같은 뱃살·튼실한 다리 근육·못생겨도 튼튼한 손가락’ 등 평소에 불만이었던 신체의 각 부분도 재산으로 등록하여 불만이었던 신체 각 부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성향과 기질 등도 재산으로 기록하여 자신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아빠에게 대하는 통명스러움·여전히 버리지 못한 엄마에 대한 투정·겨울만 되면 밀려오는 게으름·마음먹은 대로 해야 하는 고집·늦게 자는 버릇’ 등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기질·버릇 등을 재산목록에 적으면서 학습자들은 이것들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고치거나 버려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항상 인복이 많다고 자부해 왔다. 재산 목록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한번 인복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가진 게 없는 청춘. 노래가사처럼 없는 게 메리트이며, 주머니 속에는 용기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2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버리고 싶던 것들도 어쩌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소중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령, 대한민국이 아끼고 전 세계가 극찬하는 김연아는 남동생이 없다는 점에서 내가 더 가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나와 내 주위에는 항상(비록 그것이 조금 작고 초라할 지라도) 나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나의 재산이 되었다.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늘 노력하면서 지내왔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토닥여줄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학습자들은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받아왔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삶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다.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요소들까지 나를, 내 삶을 있게 한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나를 ‘생각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것들과 어울려 존재한다는 것,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의 것들에 의해 내가 존재한다는 각성을 하게 된다. 그

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재산목록 작성
성이 치유의 효과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4.2. 유서 쓰기

유서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말을 남기는 글이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쓰는 글이
어서 진솔한 태도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남은 자들에 대한 간절한 당부와
함께 애절함·그리움 등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유서의 특성은 유서에 대한
문학적 관심을 갖게 하고 글쓰기 교육의 효율적인 소재로 기능하게 한다.

죽음은 문학 탄생의 중요한 질료 중 하나이다. 공포와 불안에서 출발하여
당혹감과 공허함을 야기하고 회고와 그리움을 이끌어내는 죽음은 우리 문학사
에서 주목할 만한 주옥같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우리 문학의 출발로 일컬어지
는 『공무도하가』는 백수광부의 죽음과 그것을 말리지 못한 그 아내의 체념으로
완성되었고, 향가 중 최고의 절창으로 일컬어지는 월명사의 『제망매가』도 누이
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졌다.⁸⁾

유서가 ‘산 자를 위한 죽은 자의 문학’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라
는 극한 상황이 만들어낸 진솔함·간절함·애잔함과 같은 강한 정서적 질료 때
문이다. 이러한 질료 때문에 글쓰기 교육에서 유서를 좋은 소재이자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

유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함·회상(回想)·유한(遺恨)·유명(遺命)·유훈
(遺訓)·분재(分財)’ 등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에서도 유
서의 일반적인 구성과 형식에 따른다.

가. 臨終 - 죽음 맞이하기

유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질병·늙

8) 이홍식, 『산 자를 위한 죽은 자의 문학, 유서(遺書)』, 『漢文學論集』 34집, 근역한문학회, 2012, 82쪽.

음·전쟁 등의 이유로 죽음에 직면했거나 죽음을 상정한 사람들이 쓰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성찰을 위해 유서를 쓸 학습자들은 죽음에 직면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상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물론, 3장에 밝힌 것처럼 다양한 절차와 방법 등을 동원하여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를 준비하였지만, 20대 젊은 학습자들에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상정하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⁹⁾

(1) 아직 살 날이 더 많은 것만 같은데,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네요. 나는 곧 죽습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에, 도대체 알 수조차 없는 그 세상을 가야한다는 게 조금은 두려워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것보다 제가 한 일들이 터무니없이 적네요.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

(2)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알았지만 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않던 날이 오고야 말았다. 많은 생각이 나고 많은 감정이 교차하지만 답답하게 받아들일 거야. 평생 쿨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한번 쿨해져 보자. 사실 후회가 가장 많이 남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말, 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부족해서 잡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거창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지 말이야. 이렇게 갈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뿐이야.

(3) 난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야돼. 사실 아직도 내가 죽는 날이 다가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사실 예전에도 내 인생을 후회하며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그때는 차마 용기가 없어 그러지 못했어. 근데 그렇게 죽고 싶어 했으면서도 결국 더 살아보니까 결국 나쁘지만은 않더라. 내가 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진짜로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죽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쩌면 내가 지금 죽지 않았더라면 분명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역시나 죽지 않길 잘했어’ 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고 슬프다.

9) 죽음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① 방을 어둡게 하기 ② 촛불을 켜 다른 사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기 ③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음악 들려주기 ④ 먼저 생을 등진 사람들의 유서 들려주기 ⑤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는 것이니 죽음을 편하게 맞이하라는 교수자의 유도 등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기 앞에 놓인 죽음을 믿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 간혹, “살면서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죽음이 가까워 오니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해. 굉장히 상반된 두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게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에서 볼 수 있듯이 두려움과 후련함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 학습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학습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죽음의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은 배가 된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시간의 단절·관계의 단절·행위의 단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은 아쉽고 슬픈 일이 된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 미안함(1)과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2),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3)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나름의 성찰을 이루기도 한다. (3)의 학습자처럼 평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살아 있었음에 대해 다행을 느끼면서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건전한 자세라 할 수 있다.

나.回顧 - 삶에 대한 기억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자기성찰이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는 사고활동이며, 학습자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재구성하고 재조직의 과정을 거쳐 의미를 추구하는 정신활동이다. 따라서 회고는 단순히 지나간 일들을 시간 순서에 의해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하기 위해 재구성·재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경험을 재구성·재조직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감정이나 갈등 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말이나 행동 등을 반성하거나 정당화하게 된다. 반성이나 정당화는 말이나 행동 등 외연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의 지식·신념·삶에 대한 인식 등 정신과 정

신의 체계에도 해당된다.

학습자들이 회고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표면적으로 자기성찰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 삶에 대한 회고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성찰은 단 한 번에 이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 외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성찰은 지속적이고 신중하게 숙고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자기성찰의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성과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4) 갑자기 저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나의 기억은 아련한..6살 때부터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중촌동의 2층집의 2층. 그곳과 엄마와 아빠의 싸움. 그리고 중간의 기억이 없고 새엄마와 아빠의 재혼. 연기군에서의 새로운 시작. 나의 초등학교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두진 리버빌 아파트. 이곳에서의 아빠의 두 번째 이혼. 그리고 가게 된 흥동 친 할머니 댁. 나의 새로운 시작과 시골에서 맞이했던 중학교 시절.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나의 사춘기 시절. 고등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들어간 나와 점점 아파져 가는 조부모님...고3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찾아온 할머니의 죽음과 고3을 보내고 입학한 대학.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23살이 되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간관계를 맺고, 스쳐지나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 많아서, 아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 우선, 제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삶을 잘 살아왔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격하게 깨닫고 다서 다행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 어디로 될지 모르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친구해주고, 저를 믿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추억을 쌓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특히 가장 최근이었던 대학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소소하지만 강의실에서 장난치며 놀던 일이나 번개로 이루어진 저녁약속이나 술약속! 같이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일 같이 걸던 밤거리. 캔맥주 한 잔...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 까지도 모두 추억이 되었다니.. 저, 모르고 지나쳤던 이 소소한 일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¹⁰⁾

학습자들의 회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띤다. 하나는 (4)의 경우처럼 어렸을 때 기억부터 시간적 순서대로 회고하는 유형과 (5)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건·경험들을 중심으로 회고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억에 얼마의 분량을 할애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최근의 사건과 경험, 즉 대학생활을 회고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로는 대학생활이 최근의 일이어서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 용이하다는 '회상의 수월성'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에 와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인간관계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현재 중요하다고 느끼는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는 것이다. (4)의 학생은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부탁한다는 말도 하고 싶지만 '자연스럽게 떨어진 사람'·'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잠깐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음을,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있다.

(5)의 학생은 한 시절, 즉 대학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대학 생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들과 했던 소소한 일들에 대한 회상을 한다. 그리고 그 소소한 일들이 행복이었고 삶 자체였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 소소한 일들, 사람들과 소소한 일로 추억을 쌓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드러낸다.

삶을 회고하면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미련·후회·고마움들과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상정한 유서 쓰기에서 강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 미래 삶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진정한 자기성찰은, 혹은 자기성찰의 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회고는 자기성찰 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

10) 회고 부분은 인용할 분량이 아주 길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용이 무척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용하는 학생들의 글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인용한 학생의 글은 두 가지 유형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 글이어서 인용하였다.

임을 확인하게 한다.

다. 遺恨 - 이별과 다하지 못한 삶에 대한 슬픔

죽음을 앞에 둔 학습자들은 사람들과의 이별과 이제까지 살아 온 삶에 대해 깊은 번민과 슬픔을 나타낸다. 죽음을 매개한 유서 쓰기는 사람을 진실하게 한다. 유서에는 다른 글에서 보이는 화려함·드러냄·과장·거만함 등 자신의 삶을 꾸미는 태도와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 겸손하다. 문체 또한 아름답게 꾸미거나 길게 늘어놓지 않는다. 진솔하고 간결하다.

유서에는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후회, 다른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남은 자들에 대한 애뜻함이 진솔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읽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 읽는 사람 역시 유서를 쓴 사람의 감성과 생각에 젖어들게 한다. 학습자들의 유서에도 이별의 슬픔과 산 자에 대한 애뜻함, 다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과 회한들이 진솔하고 간결한 언어에 담겨 있다.

(6) 엄마, 아빠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못한 아들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학창시절 공부를 못해서 상장하나 못 안겨 드린 것이 제일 아쉽네요. 하나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성공해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보다 몇 백배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에 걸리네요. 저 가도 건강하시고 너무 많이는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슬플 것 같으니까요. 남은 진흥이, 진산이한테 더 사랑해 주세요.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이 진산아 오빠가 잘 못해줘서 많이 미안하다. 맨날 뭐라고 하기만 해서 마음에 걸린다. 나 없어도 말썽 부리지 말고 부모님 잘 모셔드려라. 진산이는 형 방 써서 좋겠다 임마. 건강해라.

(7) 나름 잘 살았지. 열심히 살았어. 발버둥쳤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지. 친구? 사랑? 돈?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어. 바빴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놀아도 논 것 같지 않고, 늘 갈증이 났어. 뭔가 잡았다 싶으면 또 잡아야 할 것이 보이고. 계속, 달리지 않았어도 때로는 걷고, 다른 길로 새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나름 삶의 마지막 순간인데 딱히 간절하지 않다 삶이. 나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었어. 하지만 수많은 말을 듣고 책을 보고 경험을 하고 느껴도, 나는 도무지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사는 게 행복일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냥 영원히 꿈을 꾸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다.

(8)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겨 그대로. 흔들리며 자연스레 춤추지 못했다. 내리는 비에 온 몸을 내 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지도 못했다. 내리찍는 햇빛 속을 걸으면서 흘리는 땀방울을 그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도 못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 자리하고 있을 나를 생각하며, 정작 내 안에 있는 나는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참 미지근하게 살아 왔다.

(6)의 학생은 자기 자신을 ‘못난 아들놈’이라고 낮추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한다.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슬퍼할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부모님이 슬퍼하면 자신도 슬퍼지니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부모님 잘 모실 것을 부탁한다. ‘진산이는 형 방 써서 좋겠다 임마.’라고 거칠게 말하지만 그것은 이별의 슬픔을 감추기 위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7)의 학생은 삶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나름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모든 것을 놓치기 싫어 발버둥 친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인지 과연 행복한 삶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자신이 좇았던 친구·사랑·돈 등 눈에 보이는 것만 좇느라 바빴던 삶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놀아도 논 것 같지 않고 늘 갈증이 났던 자신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던가 깊은 회의에 빠진다. 그래서 죽으면, 영원히 꿈속에 있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과 행복에 대한 회의와 반문을 하는 이유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8)의 학생은 주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은유적으로 담담하게 표현하였다. 바람에 몸을 맡겨 춤추지 못한 점, 내리는 비가 발끝까지 적시도록 내버려두지 못한 점, 땀방울이 그대로 흐르도록 내버려두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 자리하고 있을 나를 생각하며, 정작 내 안에 있는 나는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 온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미련과 회한이 서려 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참 미지근하게 살아 왔다.’라는 고

백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책망과 반성도 곁들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각성이다. 삶에 대한 반성과 후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된다. 이쯤에서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는 진정한 목적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하게 된다.

라. 遺訓 - 산 자들을 위한 가르침

유훈은 죽음을 앞 둔 사람이 그동안 자신의 삶에 비추어 산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가르침을 내리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유서에 나타난 유훈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부탁의 성격을 띤다. 이는 학습자들이 아직 어린 나이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할 처지가 아님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유훈의 대상은 거의 부모·형제자매·친구들로 한정된다. 부모와 형·언니에게는 부탁의 형태를, 동생과 친구들에게는 나뉠 가르침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9) 엄마, 아빠, 언니 - 그냥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 이라는 거 잊지 말아줘요. 아빠, 이제 아빠도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담배 좀 꼭 다시 끊으세요. 술도 적당히만 드시구요. 아빠가 아직도 이팔청춘인 줄 아시냐고 술 좀 그만 드시라 했을 때 쓸쓸하게 웃으셨는데..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진심이에요! 몸 걱정 좀 하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구.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언니는 남았잖아요. 나중에 언니 결혼하면 완전 젊고 건강한 신부 아버지로 신부 입장할 때 손잡아 주셔야 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어릴 때 엄마 몸이 많이 약하고 안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 나이만큼 건강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앞으로도 등산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나이 더 먹으면 하고 싶다면 꽃집. 해 지금부터. 내 책상 밑에 상자 보면 통장 있어. 그 돈으로 엄마 꽃집 하는 게 소원이야. 유언이니까 꼭 해야돼!

(10) 민기는 술 먹고 애들 때리지 말고 민경이 빨리 잇고 조현이는 다혈질 같은 성격 고치고 넌 그것만 고치면 참 괜찮아. 반석이는 잘 모르겠다. 은환이는 착한 놈이 나쁜 남자인 척 하지 말고 희철이는 건강 좀 챙겨. 창민이는 여자친구 좀 빨리 만들어라. 잘 생긴 놈이. 종환이는 오래 살려면 살 좀 빼라. 그러다 나 따라 온다. 혁명이는 술 조절 좀 하고 준수형하고 같이 광고회사 꼭 붙여라.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와라 기다리게.

(11) 짧은 시간 동안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세뇌당하면서 살아왔다. 영원불변하는 금이 아닌 이상 모든 물질은 낡고 변한다는 사실을 그 물건이 쓸모없어질 때 깨닫는다. 그렇다고 물질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는 말아야 한다. 즐거움과 행복감은 최대한 많이 간직 하는 게. 후회가 한탄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욕심과 경쟁은 좋지만 혐오나 원망은 좋지 않다. 남의 것이 탐이 나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노력해 얻어야 한다. 혐오, 원망, 질투 등 '상대방'을 깎아 내거나 짓누르려고 한다면 당장 그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혐오, 원망, 질투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부모에게 내린 유훈의 핵심은 건강이다. 특히, 아버지에게는 담배 끊고 술을 줄여서 건강할 것을 자식의 입장에서 부탁하는 형태를 띠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잘 할 것을 부탁하였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잘 하는 법,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어머니에게는 건강하길 부탁도 했지만 어머니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라는 권유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봐 유언이니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한다(9). 그리고 형제자매에게는 부모님을 부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친구들에게는 맞춤형 유훈을 내린다. (10)의 학생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에게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을,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는 친구에게는 빨리 잊기를, 성질이 급한 친구에게는 성격을 고치기를, 살 찐 친구에게는 건강하게 살려면 살을 빼 것을, 그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친구들에게 유훈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11)의 학생은 자신의 살아 온 삶을 반성하면서 동생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도록 유훈을 내리고 있다. '물질적인 가치에 세뇌되어 살아 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동생에게는 물질적인 가치에 세뇌되지 않도록 부탁하고 있다. 금을 제외하고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경험을 통해 말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최대한 많이 간직하라고 부탁한다. 남을 향한 혐오 · 원망 · 질투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기를 권하고 있다.

일반적인 유서와 달리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에서 유훈의 진정한 목적은 가르침에 있지 않다.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에서 유훈의 진정한 목적은 학습자들이 유훈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추는 것이다.

마. 分財 - ‘나’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법

유서에서 분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토지와 노비 등 후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분재기(分財記)¹¹⁾는 법제문서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그동안 분재기는 서지학과 역사학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죽음을 앞 둔 자의 마지막 글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유한·유훈·유명 등이 필연적으로 삽입되기 마련이어서 문학과 글쓰기 영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에서도 학습자들에게 분재의 내용을 쓰도록 유도하였다. 반드시 분재의 내용을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내가 죽은 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떻게 무엇으로 기억하였으면 하는지 분재의 내용을 쓸 것을 권유하였다.

분재를 쓰는 학생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나에 대해 무엇도 남기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하나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통해 나를 남기고 싶어 하는 태도였다.

(12) 마지막 부타이 하나 있다면 제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쓴 공책들을 버리지 않아줬으면 합니다. 성인이 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모든 순간이 담긴 것들입니다.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흔적이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미련이 남습니다. 나의 것들이 내가 떠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1) 분재기의 종류에는 財主가 생전에 재산을 직접 분배하는 許與文記와 財主가 죽은 후에 자손들이 서로 의논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和會文記가 있는데, 許與文記 중에는 모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分畝文記와 특별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別給文記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구복, 『古文書를 통한 家訓 연구』, 『정신문화연구』 19권 3호, 정신문화연구원, 1996) 174쪽을 참고하였다.

(13) 나는 너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 미안해. 대신 너에게 문화상품권과 내 저금통을 남길게. 문화상품권은 55,000원이 있어. 책상 분홍서랍 2번째 칸 열면 그곳에 하얀 봉투가 있을 거야. 책 살때마다 1, 2만원씩 빼서 55,000원 밖에 없지만 유용하게 잘 써. 게임에 쓰지 말고. 그리고 저금통에 한 5, 6만원 있을 거야. 그리고 장식처럼 세워둔 포스터통 밑바닥에 보면 5만원짜 리 3장 있어. 세뱃돈 안쓴 거니까 제발 쓸데없는 일에 쓰지 말고 공부하는데 써. 엄마 잘 부탁할게 부탁한 다는 말 안 해도 니가 잘 할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확인차. 내가 죽으면 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어.. 그리고 내 생일 때마다 내 사진 앞에 레몬맛 막대사탕 놔줘. 어차피 못 먹을 거지만 내가 좋아하던 거였으니까. 내게 있던 모든 것 너에게 줄게.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 돈 될 것들 다 너 가져. 사용 하던가 바리던가는 네 마음대로 하고.

(14)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남은 내 물건들을 가능하면 모두 태워서 없애주세요.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팔되,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소장용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기록한 것들, 일기장이며 소설까지 모조리 태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이 남아 지상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아.. 아 그리고 심영민 씨에게는 그 사람의 군번줄을 돌려주었으면 해요. 서랍 맨 아래 칸에 빨간 하트바구니 안에 들어있을 꺼야. 그리고 나는 꼭 태워줘요. 묻지도 말고.. 납골당에 모셔놓지도 말고. 뿌려주면 좋겠어요. 바나나 강물은 싫어. 물은 무서우니까 산에다 뿌려주세요.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12)의 학생처럼 공책이나 일기장·자신이 만든 공작품·사진·특별한 기념일에 받았던 기념품 등 자신의 삶을 정리한 글이나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추억 등을 남기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물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삶을 집약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남기고 싶어 하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그 학습자의 인생관, 삶에 대한 태도, 신념 등을 엿볼 수 있다.

(13)의 학습자처럼 어느 누구를 지목하여 무엇을 왜 남기는지 명확하게 기술한 학생들도 있다. (13)의 학습자는 동생에게 문화상품권·현금 등을 남길 것이고 문화상품권·현금의 정확한 액수와 그것들이 있는 곳까지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밝히고 왜 남기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13)의 학습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생에게 남김으로써 그동안 심부름만 시킨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동생에게 엄마를 부탁해야 하는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생일날 자기가 좋아하던 레몬 맛 막대사탕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4)의 학습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남기지 말 것을 부탁하는 학습자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팔아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팔되’)과 그렇다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것의 의미도 모른 채 막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소장용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심영민 씨에게는 그 사람의 군번줄을 돌려주었으면 해요’)한 뒤에야 나의 삶을 깨끗이 정리(‘나를 태워서 뿌려주세요’)할 수 있다는 의식은 모든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가 곧 나의 삶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한 무엇 하나를 남기겠다는 학습자들이나, 누구에게 무엇을 왜 남기는지 세세하게 밝히는 학습자들이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머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다. 나를 남기겠다는 생각과 나를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은 서로 반대의 생각일 것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해에서 나온 것일 뿐 그들의 깊은 내면을 이해한다면 그들 모두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남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은 무서우니까 산에다 뿌려주세요’는 오히려 남은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강한 욕구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分財의 내용을 유서에 담음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추억과 관계 또한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금 각성하게 된다. 分財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변 사람들이,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의 육체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4.3. 묘비명 쓰기 - 내 삶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

묘비명이란 묘비에 죽은 사람의 이름·생애 기간·관직·활동 등을 적은

것을 말한다. 후세에 오면서 고별의 뜻을 나타내거나 죽은 사람의 인생이나 철학을 적기도 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경을 적기도 하였다.

16세기에 들어오면서 문학적인 묘비명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시인·문학가들이 묘비명을 쓰기도 하였다. 이전 시대의 엄숙함에서 벗어나 우스꽝스러운 내용이나, 죽은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내용까지 적기도 하였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매우 많이 알려졌는데 그의 묘비명은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이다. 시인 천상명의 묘비명은 “귀천(歸天)”으로 그가 쓴 시 <귀천>의 세계를 적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헤밍웨이의 묘비명은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스탕달의 묘비명은 “살고, 쓰고, 사랑했다”이다. 이소룡의 묘비명은 “브루스 리. 절권도의 창시자”이고, 릴케의 묘비에는 “오오 장미여, 순수한 모순의 꽃”이라 적혀있다.

영국의 어느 철학자이자 종교학자, 정치가였던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한다. “10대와 20대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 30대와 40대에는 나라를 바꾸려 했다. 50대와 60대에는 가정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알았다. 나를 바꾸어야 그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이처럼 묘비명에는 남은 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짧은 말이 적혀 있다.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남은 자들에 대한 부탁, 그리고 삶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담았다.

학습자들의 묘비명에도 삶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담겨 있다.

- 웃어라. 너희를 볼 때 나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어라
- 내 인생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이었다.
- 이때까지 내 삶은 모두 거짓이며 꿈이었다.
-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 즐거운 일을 맘껏 누리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 서글픈 뿐이다.
- 왜 이렇게 치열하게만 살았을까. 더 행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 다 버리고 간다. 다음 생에 다 가질 거다

남은 자들에게 하는 부탁의 말(웃어라. 너희를 볼 때 나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어라)도 있고, 죽음에 안타까움(내 인생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이었다)도 있다. 살아온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때까지 내 삶은 모두 거짓이며 꿈이었다)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복을 찾지 못한 삶에 대한 아쉬움(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 즐거운 일을 맘껏 누리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 서글플 뿐이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만 살았을까. 더 행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을 애잔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표현이야 어떻게 했든, 진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버리고 간다. 다음 생에 다 가질 거다’는 이러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묘비명이다. 유서 쓰기를 통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지만 그 이유는 앞으로의 삶을 완벽하게 살고 싶다는, 살아야겠다는 바람과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5. 결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견어낸다면 유서 쓰기는 자기성찰을 위한 효율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제적 인간’·경쟁적 개인’을 강요당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글쓰기이다. 자기성찰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이루어진다.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는 회고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서 쓰기는 글쓰기 교육의 좋은 소재이자 양식이기도 하다. 유서는 이별의 정한과 삶에 대한 애뜻함을 진솔한 언어로 담아내고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절실한 바람과 의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의 구성·단어 선택·문장의 배열과 표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서 쓰기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들을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서 쓰기를 통해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을 이룰 수 있다.

필자는 2013년 ~ 2015년까지 3학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글쓰기>라는

강좌를 실시하였다. 이 강좌를 실시하면서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가 학생들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가 글쓰기 교육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연구하였다.

총 106명(2013년 43명, 2014년 36명, 2015년 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 90.6%(96명)’ · ‘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84%(89명)’ ·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용기가 생겼다 - 86.8%(92명)’ ·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 84.9%(90명)’ 등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행복하게 살 용기가 생겼다고 답한 학생들이 압도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느낀다 - 71.7%(76명)’ · ‘자신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83%(88명)’ · ‘글쓰기 수업에 재미를 느낀다 - 89.6%(95명)’ 글쓰기 교육에도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쓰기는 자기이해를 높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줄 뿐 아니라 글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글쓰기를 재미있게 수행하여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소재이자 기제이다.

〈참고문헌〉

- 이강옥,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제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 이흥식, 『산 자를 위한 죽은 자의 문학, 유서(遺書)』, 『漢文學論集』 34집, 근역한문학회, 2012.
- _____, 『죽음의 전통과 유서(遺書)-유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 _____,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 '내 슬픔에 대해 글쓰기'를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第74輯, 韓國言語文學會, 2010.
- _____, 『자기성장 관점에서 본 『겨울왕국』』, 『國語文學』 第57輯, 국어문학회, 2014.
- 정종진,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시그마북스, 2009.

【국문초록】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대학생들은 ‘경제적 인간’·경쟁적 개인’을 강요당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자기성찰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이루어진다. 자기성찰은 회고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생들은 유서 쓰기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과는 달리 많은 것(사랑·은혜·보살핌 등)을 받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것들도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는다. 유서를 쓰면서 지나간 삶에 대해 회상하게 되는데 회상은 삶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재구성·재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재구성·재조직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다.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의 목적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삶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니며, 새로운 삶에 대해 에너지를 얻는 데 있다. 자기성찰을 위한 유서 쓰기는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치유의 효과를 갖는다. 유서를 쓰는 과정에서 얻는 자긍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소중함, 부정적인 경험들을 털어놓는 데에서 오는 위안, 새로운 삶에 대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치유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주제어: 자기성찰, 자기실현, 자기성장, 遺恨, 遺命, 遺訓, 정의 교감, 서간체 산문

Writing for the Self-Reflection: the Wills

Chung Ki-cheol

Nowadays, students, living on the world of infinitive competition, are forced to be 'a man of having economic senses' or 'a complete individual.' By the result, they don't have enough time for their self-reflections. The self-reflection is only achieved after such ontological questions whether he is living as a true human being are answered to himself, after thinking back his past life, definitely not through others's. The purpose of reconsidering the past life is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ir life from the different angles, furthermore, making their plan for new life and realizing it.

The wills comprise three type of writings: 1) lists of property 2) the wills 3) engrave epitaphs. After writing the lists of their property, students recognize that they have received much better treatments(love, favor and caring) than they have deserved. Moreover, they must accept that even harassments become very important parts in terms of constructing their life. By this experience, we may have such self-esteem that 'I am a greater man than I have ever imagined.'

While writing their wills, students may rethink about these life-events happened in the past. The rethinking of the past-events means that the life-experiences can be rearranged and restructured as they happened in

order to give them significant meanings. As their life is rearranged and restructured, students will gain their energies not only for their self-reflection, also for their new life.

The general practice of witting wills have been conducted to give teachings to the descendants. However, the propose of self-reflective wills is to archive the self-reflection on their life, furthermore, to have rightful attitudes and to gain energies for their new life. More than these things, the wills written for self-reflection have also healing effects. These healing effects are produced not only through the self-esteem on the way of writing these wills, but also through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 the relaxation after dissipating negative experiences and the positive view after achieving new life

Key words: Self-Reflection, Self-Realization, Self-Growth, The Dead's Own Spite(遺恨), The Last Orders of the Dead(遺命), Death-Bed Counsels(遺訓), Communion of affection, Epistolary Prose

이 논문은 2015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